

'딩동댕~ 전국노래자랑' 대성황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 3000여명 인파 속 성황리 마쳐

임실군이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 본선 녹화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려한 관광 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녹화 현장에는 3천여명의 인파가 운집하여 본선 장소인 장미원 광장을 가득 메웠다.

본선 무대는 사회자 남희석의 재치 있는 진행과 함께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최종 15팀의 개성만점 출연자들이 각자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여기에 미스트롯2 우승자 안성훈과 미스트롯2 우승자 양지은을 비롯해 김성환, 황민우, 염유리 등 국내 정상급 초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진행된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은 임실N장미축제(5.28~5.31) 전인 4월말이나 5월초에 방영될 예정이다.

전국노래자랑 본선 무대인 장미원은 200여 종 2만2,000여주의 장미가 식재된 공간으로, 비록 아직 장미가 만개하



임실군이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광장에서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군편' 본선 녹화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유럽풍 경관과 어우러진 정원의 정취는 현장에 찾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군은 대규모 인파가 몰린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장 전 구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전문 경호 인력과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한 입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했다.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와 실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인파 밀집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현장에는 구급차와 의료지원반을 상시 운영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행사장 주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 요원을 집중 투입하고, 인근 주차장 확보와 효율적인 차량 흐름 유도를 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안전 및 교통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무사고 행사를 실현하여,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소통의 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임실치즈테마파크가 가진 복합문화관광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복 공무원 친화 도시 조성 본격화

남원시, 시설 이용료 할인 등 시행

남원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을 위한 '제복공무원 친화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격무의 현직 제복 공무원들에게 편안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관내 주요 숙박·관광 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거나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복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존중받고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남원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한옥 숙소인 합과우 소리채워관공는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30% 할인(단, 지역화폐 결제 시 20% 적용)해, 제복 공무원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 속에서 편안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또한 교통공인 숲속아영장은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코로티지와 △트리하우스는 경찰·소방은 물론 군인·교도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운영, 해당 시설 이용 시 결제 금액의 30%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용 혜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복 공무원 본인 명의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이용 당일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설별 자세한 정보와 예약(온라인·전화)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금동, '위기가구 집중살핌기간' 집중 운영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집중살핌기간'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집중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통보된 가구를 우선으로 방문 확인하고, 통장과 지출 단계 등 인적 안전장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과 현장이 결합한 촘촘한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동장과 맞춤형복지팀은 3팀 2인 1조로 하루 2~3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



에서 바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실제 위기가구가 발굴되기도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글로벌 미식관광 본격 추진

순창군,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 운영

순창군이 전통 장류문화와 지역 미식자원을 연계한 글로벌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순창 장류의 세계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4월 외국인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인 '장류벨트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두 차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일정은 1차 4월 3일부터 5일까지, 2차 4월 17일부터 19일까지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를 기반으로 순창의 전통 장류와 지역 대표 음식, 관광자원을 연계해 외국인의 시각에서 순창 미식관광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해 기획했다.

참가 대상은 10개국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특히 SNS 활용이 가능하고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지원자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순창의 대표 미식을 직



접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장류를 활용한 순창고추장볼고기와 순창삼합, 보리비빔밥 등 지역 대표 음식과 순창담은초콜릿, 콩이빵 등 지역 디저트를 경험하고 전통 장 담그기 과정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한 금과 들소리 체험과 농장 체험, 옹기 체험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발효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 탐방도 함께 진행된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한층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의소, 독소형 식중독 예방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의소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세균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한 독소를 만드는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는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들어, 오염된 밥, 볶음밥, 김밥, 죽 등 곡류 음식을 실온에 오래 두면 포자가 증식해 독소를 만들어 식중독을 일으킨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손·상처·코 점막에 서식하고, 맨손이나 상처 난 손으로 조리할 때 음식에 오염된다. 이 균은 가열로 사멸하지만, 만들어진 장독소는 일반적인 가열로는

제거되지 못해, 균에 의한 식중독은 섭취 후 보통 1~6시간 이내에 급성 생 위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 24시간 내 자연 호전되지만 삼한 경우 탈수와 고령자·기저질환자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예방 수칙으로 △청결: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상처·화농성 피부질환자 조리 금지 △보관: 조리 즉시 섭취 또는 5℃ 이하 냉장 또는 65℃ 이상 온장 보관 △세척: 채소·과일 충분히 세척하기, 생으로 섭취 시 염소(100ppm, 5분) 소독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난임부부·임산부 심리지원 확대

순창군이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 심리지원 확대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상담회를 개최하고 난임 및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군은 지역 내 난

임부부와 임산부 가운데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하고, 대면·비대면 상담을 비롯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자조모임,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심리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보건의료원, 영농철 맞아 조기 진료 실시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영농철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진료한다.

이에 따라 진료시간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변경된다.

진료시간 변경은 영농철 아침 일찍 의료원을 찾는 내원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한 지역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하며, 영농철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4월부터 정령치 순환버스 운행 재개

남원시가 지리산 정령치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령치 순환버스'의 전 구간 운행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버스는 남원역을 기점으로 지리산 정령치까지 운행하는 셔틀 버스로, 동절기 도로 통행 제한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달궁'까지만 단속 운행해 왔으나, 이번 제한 해제 조치로 4월부터는 정령치 전 구간을 제한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 요금을 기존과 동일한 1,00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순환버스는 KTX 남원역 도착 시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기차 여행객들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남원역과 시비스타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은 물론 광한 무인구와 지리산 일대를 잇는 가교 역할 수행으로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환버스의 상세 노선과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